

제주지역 일 대학 학생들의 음주문화 실태 조사

박희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적정음주는 심장질환을 비롯한 몇 가지 질병의 유병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적정량의 알코올 섭취는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은 간질환을 비롯하여, 위장관계 질환, 알코올 중독,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 등의 건강피해와 사고 및 범죄 위험의 증가, 음주로 인한 폭력성 증가, 개인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김종규와 김중순, 2010). 특히 대학생들의 무절제한 음주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신입생 환영식에서 선배들의 강압에 못 이겨 감당할 수 없는 음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중 술을 마신다는 음주인구가 7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음주인구 비율에서 대다수의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20대의 음주인구비율이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대의 음주인구 비율은 90.8%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음주빈도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보다 2배에서 1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진열, 2008).

우리나라 청년들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며, 대학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술을 마실 수 없으나 우리 사회는 대체로 대학생의 음주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대학생활 기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자아의식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해석의 틀이 완성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시절부터 입학전의 입시준비에 의한 긴장으로부터의 해방 차원에서 자칫 무절제한 음주습관에 젖어들기 쉬우며,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동기, 선후배, 이성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위한 음주기회가 증대되어간다(김맹진, 2009). 이는 결국 음주폐해로 이어지며 건강문제, 음주운전, 성폭행, 기물파손, 법적문제, 학업관련문제 그리고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다.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생 때의 음주양상이 성인기의 음주양상을 예측할 뿐 아니라(O'Neil, Parra, & Sher, 2001), 대학시절의 과음과 폭음이 문제 음주자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가 되며(남경아, 2009), 한번 형성된 음주습관은 잘 변화하지 않고 음주 문제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류미, 이민규 및 신회천, 2010). 대한보건협회는 6년째 대학생들의 음주문제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대학생절주동아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C대학도 4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e-mail : ibrown@swc.ac.kr)

투고일 : 2013년 7월 30일 심사회의일 : 2013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8월 30일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n(%)	구분	n	%
일반적특성	성별	남	75	25.42
		여	220	74.58
	학년	1학년	101	34.24
		2학년	194	65.76
	전공	간호보건학부	81	27.46
		관광학부	104	35.25
		사회복지학부	51	17.29
		정보기술건축학부	36	12.20
		예체능계열	22	7.46
	거주지	기숙사	45	15.25
		집	202	68.47
		자취 혹은 하숙	41	13.90
		기타	7	2.37
	동거인	혼자	15	5.08
		친구	50	16.95
		부모	180	61.02
		형제, 자매	32	10.85
		배우자	9	3.05
		기타	9	3.05
첫 음주시기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14세이전)	22	7.51	
	중학교(14세-16세)	65	22.18	
	고등학교(17세-19세)	83	28.33	
	고등학교 졸업이후/대학(20세이후)	123	41.98	
술자리 경험 (지난1달간)	있다	151	52.80	
	없다	135	47.20	
블랙아웃 경험	전혀없다	172	59.31	
	1년에 1-2회 이하	75	25.86	
	6개월에 2회 이상	24	8.28	
	주1회	15	5.17	
	거의 매일	4	1.38	
원치 않은 음주경험	자주 있다(주 1-2회 이상)	14	5.00	
	가끔 있다(월 1-2회)	77	27.50	
	거의 없다(연 1-2회)	113	40.36	
	전혀 없다	76	27.14	
음주이유	주변의 음주강요 혹은 권유 때문	44	16.73	
	폭넓은 대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	128	48.67	
	괴롭거나 슬픈일, 혹은 기쁜일 때문	42	15.97	
	음주 자체가 좋아서	35	13.31	
	술을 마신적이 없다	14	5.32	
음주량	정상음주(0-11점)	197	69.61	
	상습적인 과음(12-19점)	62	21.91	
	문제음주(20-23점)	18	6.36	
	알코올리즘(24점 이상)	6	2.12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과 맞물려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진로와 학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특성

(N=295)

변 수	구분	음주 시기		술자리 경험		블랙아웃 경험		원치 않는 음주경험	
		χ^2	p	χ^2	p	χ^2	p	χ^2	p
성 별	남자	11.62	.040	2.88	.411	1.88	.865	16.56	.011
	여자								
학 년	1학년	4.61	.466	1.16	.762	8.86	.115	6.48	.372
	2학년								
전 공	간호보건학부	26.71	.144	19.17	.085	21.55	.365	37.01	.044
	관광학부								
	사회복지학부								
	정보기술건축학부								
거주지	예체능계열	48.53	.018	40.49	.000	25.76	.174	35.86	.035
	기숙사								
	집 자취 혹은 하숙								
동거인	기타	49.07	.015	26.29	.093	62.29	.000	52.84	.035
	혼자								
	친구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기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낙관성이며 이는 만족도와 관련된다(김혜정과 백용매, 2006).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음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와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기제들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또는 음주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고자 시도한 경우에 주로 음주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서경현과 양승애, 2011; 윤명숙과 이효선, 2010; 이순희, 2012; 이정찬, 박재산 및 김귀현, 2011). 음주량은 낮은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음주자는 불만족의 위험이 크고, 불만족을 많이 느낄수록 음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ivumaa-Honkanen et al, 2012).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학문탐구에 전념하면서 개인의 인격함양이 바탕이 된 바람직한 대학생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및 대학생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김명숙과 김명희, 2009). 실제로 음주와 대학생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음주문화실태를 파악하고, 음주문제와 스트레스, 만족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 전문대학 학생들의 음주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음주문제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소비행태를 줄이고, 바람직한 음주문화 형성 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음주특성을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특성과 음주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음주량과 대학생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표 3. 일반적 특성과 음주특성에 따른 음주량 분석

변 수	구 분	정상 음주	상습 과음	문제 음주	알콜 리즘	χ^2	p
성 별	남	33	25	10	2	25.56	.000
	여	164	37	8	4		
학 년	1학년	62	23	8	2	3.05	.549
	2학년	135	39	10	4		
전 공	간호보건학부	60	16	2	1	14.28	.578
	관광학부	61	24	10	3		
	사회복지학부	38	8	4	0		
	정보기술건축학부	23	10	1	1		
	예체능계열	15	4	1	1		
거주지	기숙사	29	13	1	1	29.02	.024
	집	146	33	11	4		
	자취 혹은 하숙	17	9	5	1		
	기타	4	3	0	0		
동거인	혼자	6	4	3	1	22.81	.531
	친구	28	16	4	0		
	부모	129	32	9	4		
	형제, 자매	20	8	2	1		
	배우자	6	2	0	0		
	기타	7	0	0	0		
첫 음주시기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14세 이전)	12	6	2	1	20.23	.444
	중학교(14-16세)	40	14	6	2		
	고등학교(17-19세)	53	20	7	1		
	고등학교 졸업이후/대학(20세 이후)	90	22	3	2		
술자리경험 (지난1달간)	있다	91	43	10	3	16.84	.156
	없다	101	16	8	3		
블랙아웃 경험	전혀없다	134	29	4	1	92.61	.000
	1년에 1-2회 이하	43	21	6	0		
	6개월에 2회 이상	9	7	4	1		
	주1회	7	4	2	2		
원치 않은 음주 경험	거의 매일	2	1	2	2	66.43	.000
	자주 있다(주 1-2회 이상)	5	6	1	2		
	가끔 있다(월 1-2회)	38	23	9	2		
	거의 없다(연 1-2회)	88	17	7	1		
	전혀 없다	57	14	1	1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제주도내 일 전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전교생을 포함하기 위해 4개 학부와 1개 계열의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3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3학년은 특정학과만 해당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총 350부를 배부하여 30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기입을 잘못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29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도구

1) 대학생의 음주문화 실태조사 도구

대한보건협회에서 사용하는 대학생 음주문화 실태조사

를 위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총 25문항이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절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음주관련 행태 및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전공, 거주, 동거인, 첫 음주 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절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와 관련하여 절주교육 경험유무, 절주교육 필요성, 절주교육의 효과적 실시 시기 등이 포함되며, 음주관련 행태 및 인식에는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음주 및 음주문화, 블랙아웃 현상 경험 유무, 원하지 않은 음주 경험, 원하지 않은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절주 및 금주 시도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과 음주관련 행태 및 인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음주량

음주량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도구(AUDIT-K)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하였으며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UDIT-K는 국민영양조사에서도 제 3기(2005년)부터 이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대한보건협회에서 대학생 음주문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 까지 분포하며 점수결과에 따라 0-11점은 정상음주자, 12-19점은 상습적인 과음자, 20점-23점은 문제음주자 혹은 잠재적인 알코올리즘 환자, 24점 이상은 알코올리즘 환자로 분류한다.

3) 대학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은 VAS(visual analog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VAS는 개인의 가치나 태도, 특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으며, 10cm의 실선에 연구대상자가 해당되는 지점에 표시한 지점을 측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는 낮음을 의미한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모든 통계처리는 5%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음주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음주특성 및 음주량과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X^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활 만족도, 대인

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량과 대학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지역, 일 대학에 국한되어 수행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74.58%)이 남학생(25.42%)보다 많았으며, 2학년 학생(65.76%)이 1학년(34.24%) 보다 많았다. 전공은 관광학부 학생(35.25%)이 가장 많았고, 간호보건학부(27.46%), 사회복지학부(17.29%), 정보기술건축학부(12.20%), 예체능 계열(7.46%) 순이었다. 거주지는 집에서 다니는 학생이 202명(68.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인은 부모가 180명(61.02%)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와 관련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첫 음주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이후'가 123명(41.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시기'가 83명(28.33%), '중학교 시기'가 65명(22.18%)이었다. '초등학교 시기'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22명(7.51%)으로 나타났다. 지난 1달간 술자리를 경험한 대상자가 151명(52.80%)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다량의 음주로 인해 블랙아웃, 이른바 블랙아웃을 경험한 학생은 11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68%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은 음주를 경험한 학생은 '자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명(5.00%), '가끔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77명(27.50%), '거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13명(40.36%)이었다.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폭넓은 대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은 '주변의 음주강요 혹은 권유 때문'에 마신다고 하였고, 세 번째는 '피롭거나 슬픈일, 혹은 기쁜 일 때문'에 마시며, 마지막은 '음주 자체가 좋아서'라고 하였다. 음주량은 '정상음주'가 가장 많았고(69.61%), '상습적인 과음'(21.91%)과 '문제음주'(6.36%) 순이었으며, '알코올 중독' 수준의 음주자도 6명(2.1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생할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

변 수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활 만족도	5.39	2.16
대인관계 만족도	5.40	2.12
스트레스 수준	5.48	1.94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음주시기와 원하지 않은 음주경험과, 전공은 원하지 않은 음주경험과, 거주지는 음주시기와 술자리경험, 원하지 않은 음주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동거인의 경우 음주시기와 블랙아웃경험, 원하지 않은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은 음주특성과 서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과 음주특성에 따른 음주량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음주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거주지가, 음주특성에서는 블랙아웃 경험과 원하지 않은 음주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 대학생할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

수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은 모두 중간정도의 점수분포를 보였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39점과 5.40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5.48점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주량과 대학생할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음주량은 대학생할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늘어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과 음주량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연구결과에 따라 음주특성을 살펴보면,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이후가 123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었다. 김종규와 김종순(2010)의 연구에서 음주 시작시기는 고등학교 졸업이후가 54.4%로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김승대(2010)와 남경아(200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에 음주가 시작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해야 할 것은 중학교 시기에 음주를 시작한 빈도이다. 본 연구가 22.0%이고, 김종규와 김종순(2010)의 연구에서는 14.5%로 나타나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음주를 시작하였다는 응답자도 7.4%로 나타나 어른들의 음주문화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교육 강화나 청소년 음주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동기의 경우 폭넓은 대학생할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8.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를 제시하면, 김인석과 이연희(2003)는 음주동기에 있어 주변인의 영향이 성격과 상호작용하여 음주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고, 정원철(2006)은 음주에

표 5. 음주량과 대학생할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변수	r	p
음주량		
대학생활 만족도	.002	.975
대인관계 만족도	.018	.753
스트레스 수준	-.020	.738

있어 친구의 영향이 많을수록 음주경향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조성기 등(2001)은 학과나 동아리 행사와 같은 사교적인 목적이 음주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는 친구와의 다툼, 사고, 재정손실, 결석, 예기치 않은 성행위, 자살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25배나 높으며, 면역력 저하로 다양한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여대생의 과음은 스스로를 성폭력의 희생자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높인다(Ulman, Karabatsos, & Koss, 1999). 그러므로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건전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오락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은 음주시기와 원하지 않는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원하지 않는 음주경험에, 거주지는 음주시기와 술자리경험, 원하지 않는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인의 경우 음주시기와 블랙아웃경험, 원하지 않는 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학년은 음주특성과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대(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동거인에 따라 블랙아웃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본 연구에서는 동거인 변수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또한 원하지 않는 음주경험의 경우 성별과 동거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전공, 거주지, 동거인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성별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마시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인석과 이연희, 2003; 남경아, 2009; 남진열, 2008; 정원철, 2006).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음주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증가하는 여성의 음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거주지의 경우 정원철(2006)은 음주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대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에 비해 음주율이 낮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학교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일반거주자(예: 하숙, 자취)에 비해 더 심각하며, 특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음주문제에 있어 주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MaCabe, 2002; Wechsler, Lee, Nelson, & Kuo, 2002). 전공에 있어, 김계하와 김옥수(2003)는 전공에 따라 총 음주량과 음주빈도, 1회 음주량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

다. 즉, 예체능계는 인문계보다 총 음주량이 더 많았고, 음주빈도에서는 예체능계가 인문계와 자연계 두 집단보다 더 자주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을 종합할 때 음주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접근은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은 음주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민과 이민규(2005)는 스트레스는 음주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금선 등(2003)은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나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였고, Murphy 등(2005)은 알코올 소비량이 적은 여대생이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여대생보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미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다고 하였다. 긴장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자신들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음주나 약물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Lewis & O'Neil, 2000)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적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아지는 등 음주와 만족도, 스트레스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박중순, 2000). 본 연구는 여학생의 분포가 남학생 보다 높아 정상 음주자가 69.6%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만족도와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개인의 가치나 태도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하더라도 각 변수의 세부구성요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서구 대학생들은 불안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유대관계가 보다 확고해지는 사회적 상황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으므로(김명숙과 김명희, 2009) 대학생의 음주량은 대학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이거나 혹은 낮은 경우라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음주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음주여부 보다는 음주량에 초점을 두어 과도한 음주에 대한 제재 혹은 폭음 문화 근절의 차원에서 해결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음주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음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대학생의 음주를 조절하기 위한 접근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음주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음주의 기회나 음주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건전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혹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오락 및 여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음주 관련 변인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계하, 김옥수(2003). 남녀 대학생들의 우울과 음주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12(1), 43-53.
- 김명숙, 김명희(2009). 일 지역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50-60.
- 김명진(2009). 개인의 가치가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음주자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4), 376-384.
- 김승대(2010). 경북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실태 조사. *대한보건연구*, 36(1), 17-30.
- 김인석, 이연희(2003).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25-541.
- 김종규, 김중순(2010). 대구지역 남자 대학생의 음주 실태와 음주 행동에 관한 연구: 1999년과 2009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577-588.
- 김혜정, 백용매(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3), 683-699.
- 남경아(2009). 대학생의 문제음주정도와 사회심리적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8(4), 201-511.
- 남진열(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특성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12, 27-47.
- 류미, 이민규, 신회천(2010). 대학생의 폭음 관련 사회인 지적 요인과 음주 정도의 관계-지각된 음주기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1), 63-79.
- 박경민, 이민규(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77-293.
- 박종순(2000).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연구*, 26(4), 393-413.
- 서경현, 양승애 (2011). 대학생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음주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8(11), 331-352.
- 윤명숙, 이효선 (2010).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 이순희 (2012). 재미 한인대학생의 문2010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음주문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4), 366-375.
- 이정찬, 박재산, 김귀현 (2011). 스트레스, 삶의 질, 가족관계2010 만족도가 흡연량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37(1), 29-43.
- 조성기, 장승욱, 윤혜미, 이해경, 최현숙, 제갈정 (2001). *대학생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정원철(2006).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 사회적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8(1), 347-372.
- 한금선, 양승희, 전점구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65-579.
- Koivumaa-Honkanen, H., Kaprio, K., Korhonen, T., Honkanen, R.J., Heikkila, K., & Koskenvuo, M. (2012). Self-reported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Use. *Alcohol Alcohol*, 47(2), 160-168.

Lewis, B.A. & O'Neill, K.H. (2000). Alcohol experiences and social deficits relating to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25(2), 295-299.

MaCabe, S.E. (2002). Gender differences in collegiate risk factors for heavy episodic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49-56.

Murphy, J.G., McDevitt-Murphy, M.E., & Barnett, N.P. (2005). Drink and Be Merry? Gender,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 19(1), 184-191.

O'Neil, S.E., Parra, G.R., & Sher, K.J. (2001). Clinical relevance of heavy drinking during the college years: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perspectiv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350-359.

Ullman, S.E., Karabatsos, G., & Koss, M.P. (1999). Alcohol and sexual assault in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6), 603-625.

Wechsler, H.J., Lee, J.E., Nelson, T.F., & Kuo, M. (2002). Underage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access to alcohol, and the influence of deterrence polici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0(5), 223-236.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culture of college students in Jeju Province related to drinking alcohol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culture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95 students at a college in Jeju province, students who met the criteria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drinking most frequently began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41.7%) and the reason for drinking was to get along with others (48.7%) and normal drinkers were common (69.6%). Gender, residence, experience of black outs and not to wishing to drink alcoho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rinking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tress level were not correlated with alcohol consumption. **Conclusion:** Educational and college authorities need to acknowledge colleges'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ir students' drinking behavior and to commit themselves to support an environment of responsible alcohol use.

Key words: drinking behavior, personal satisfaction, stress

- Abstract -

A Survey of Drinking Behavior by College Students in Jeju

Park, Hee-Ok*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